월요광장

# 공렴(公廉)으로 벼슬했던 호남 사람들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호남에는 예로부터 뛰어나며 어질고 준수한 선비들이 많았다." 조선 중기의 거유 우암 송시열이 했던 말이다. 우암의 제자 지촌 이희조는 "옛날부터 호남에는 대체로 유학자들이 많았다"라고 말하여 호남에는 오래전부터 어진 선비나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몇몇 선비나 유학자들을 거론하여 호남의 의리 정신을 세워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논해 보고자 한다. 15세기에서 16세기 동안 살아갔던 호남 출신 금남(錦南) 최부(崔溥 : 1454~1504)와 지지당(知止當) 송흠(宋欽 : 1459~1547) 사이에 얽힌 내용을 알아보자.

최부는 본디 나주 출신으로 본관은 탐진(耽津)인데, 처가인 해남에서 후학을 가르쳐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24세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29세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홍문과 수찬, 예문관 응교, 홍문과 교리, 사간원 사간 등의 요직을 역임했으며, 제주도에서 벼슬 살다가 귀향길에 태풍을 만나 표류하며 온갖 고생을 겪고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귀국하여 세계 3대 여행기 중의 하나인 '표해록'(漂海錄)이라는 명저를 남긴 학자 관인이었다.

'미암일기'라는 국보급 저술로 유명한 학자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은 바로 금남의 외손자로서 외조 최부의 일대기를 남겼으니 "금남 선생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여러 차례 위험한 상소를 올리며 대의(大義)를 힘써 붙들었었다"라는 평을 남겼다. 최부는 패악무도한 연산군 시대에 벼슬하면서 폐정을 통박하고 공경대부들의 비행까지를 거침없이 꾸짖었던 이유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단천(端川)으로 귀양갔으며,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귀양지에서 51세라는 나이에 처형을 당한 비운의 선비이자 학자였다.

송흠은 신평 송 씨로 당시는 영광군, 지금은 장성군 삼계면에서 태어났다. 22세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했으니 연산군의 학정을 맞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내다 중종반정으로 다시 벼슬길에 올라 전라감사 한성부좌윤,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고관의 지위에 오른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는 특히 효성이 뛰어나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였는데, 어머니는 101세의 장수를 누렸고 자신도 89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 효헌(孝憲)이라는 시호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인품이어서 숙종 때의 대학자 명재 윤증은 "어머니를 효도로 섬겼고 벼슬살이는 청렴하게 하였다"(事母孝 居官淸)라는 찬사를 바치기도 했다.

나주 출신 최부와 영광 출신 송흠은 학자이자 관인(官人)으로 너무나 멋진 일화를 남기고 있어서 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교훈을 얻기에 충분하다. 최부의 나이는 송흠보다 다섯 살 많았다. 하지만 최부는 29세, 송흠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는 10년의 차이가 난다. 최부는 송흠에게 대선배가 된 것이다.

송흠은 벼슬살이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침 그때 최부도 고향인 나주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나주와 영광은 멀지 않은 거리여서 송흠은 고향의 선배인 최부를 찾아가 인사를 올리려고 말을 타고 찾아갔었다. 둘이 반갑게 환담을 나누고 헤어지던 무렵, 최부가 송흠에게 물었다. "서울에서 영광까지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은 것이다.

이에 송흠은 나라에서 관인에게 제공해 주는 역마로 왔노라고 했다. 최부가 "그러면 영광에서 우리 집까지는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었다. "같은 역마를 타고 왔다"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최부가 와락 화를 내면서 초급 벼슬아치가 왜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지 않고 역마를 타고 다니느냐고 꾸짖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영광까지야 공무이니 당연히 역마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영광에서 최부의 집까지는 사사로운 일이니 역마를 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최부는 서울에 올라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송흠을 나라에 고발하겠다고 말하고는 끝내 서울에 와서 나라에 고발하여 송흠이 처벌받게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 송흠은 최부를 참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때의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겨 세상에 드문 명관이 되었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하여 조선의 대표적인 청백리가 되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탄핵당하고 구속된 대통령이 나온 오늘, 공(公)과 염(廉)으로 벼슬했던 호남 출신 관인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법조칼럼

# 부자들이 존경받는 나라

김 하 중
변호사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독일에 파견되어 통일과정을 공부하고 온 적이 있다. 가족들과 함께 갔으므로 부득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다. 중고차였지만 독일에서 생산된 차라서 성능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을 태우고 아우토반(Autobahn)을 달려 이웃나라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이 없는 고속도로이다.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속도제한 없이 달려도 딱지를 끊을 염려가 없어서 좋았다. 가속페달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질주해 본 적도 있었다. 돌이켜 보면 전 가족을 태우고 저지른 무모함에 자책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처럼 아우토반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나의 자동차를 앞지르는 슈퍼카들이 종종 있었다. 백미러에 비치는 작은 물체가 순식간 따라붙어 상향등을 깜박이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내오곤 했다. 외국이라 보복운전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비켜주기는 하였지만 그럴 때면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나의 경험을 들은 유학생이 나의 무례함을 깨우쳐 주었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자기 자동차보다 빠른 자동차가 뒤따라오면 얼른 비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빠른 차는 비싸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부자이며,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므로 얼른 진로를 양보를 해서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 유학생의 부연설명을 듣고나서 나의 무례함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독일을 비롯한 기독교 문명권에 속한 나라들은 십일조를 내야하는 교회법을 배경으로 세금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의식이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 탈세는 십계명의 하나인 위증죄와 함께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범죄로 취급되어 실형선고가 관행이라고 한다. 그 결과 부자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그만큼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니 진로를 양보하여 예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고속도로에서 고급차는 쉽사리 양보를 받지 못한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독일의 부자들처럼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의 총수가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재벌의 총수들도 연달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부정한 대통령이 재단기금의 출연을 요구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거액을 가져다 바치고 은근슬쩍 그보다 몇 배가 넘는 반대급부를 챙겨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들이다. 부자들은 세금은 아끼면서도 뇌물은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온 슈퍼카가 경적을 울려도 흔쾌히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진 재벌의 일가족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아버지와 자식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형사법정 앞 포토라인을 밟았다. 재벌일가의 숨겨진 범죄들이 총수자리를 승계하려는 형제의 난으로 그 일각을 드러낸 것이다. 재벌의 총수는 재판정에서 일본말을 해대고, 그를 승계한 후계자는 어눌한 우리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축첩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재벌의 총수는 그가 후원한 미인대회로 선발한 37년 연하의 미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삼았다. 그날의 형사법정은 우리나라 재벌가의 도덕적 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슈퍼카를 타는 부자들에게 고속도로의 앞길을 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서양의 격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경주의 최부자집은 "사방 100리 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가훈을 지켜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들이 그 재산의 크기에 비례하는 존경과 예우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고급차가 뒤따라오면 기분좋게 양보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희망한다.

기 고

# 순천만국가정원 기상과학관 건립 절실하다

이 재 성
순천시 환경보호과장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발명과 기계화로 대표된다. 2차는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시대를 일컫고, 3차는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정보화와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생태 중심 순천'이라는 더 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인구 28만명의 작은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제1호 국가정원의 도시'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보전된 연안습지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순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라는 이름에 맞춰 '청정 대기질' 유지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EV)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 시민·학생 환경교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4가지 핵심 실천지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2018년 12월 '순천 잡월드' 개관을 앞두고 연관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 잡월드'에 제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순천만 국가정원 기상과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순천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기상과학관은 도시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국제컨벤션센터이자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세계 100여 개 국 1500명이 참석하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등 국제회의 개최, 생물다양성, 국제포럼 등 굵직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기상과학관 건립은 지방차원에서 잡월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변화, 효과 등에 적절히 대응·대비해야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2030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맞춰 기상과학관은 체험위주 프로그램을 구성해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신기술 습득, 첨단기술에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당당히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인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기상과학관은 시간을 새롭게 계획하고 통찰력과 상상력에 능숙한, 인간과 기계 사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순천만 국가정원 기상과학관 건립' 계획에 따르면 기상과학관 주 관측실은 시공간을 넘어 우주의 광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커다란 눈으로 7m 원형돔과 600mm 리치 크레티앵 반사망원경이 설치된다. 보조 관측실은 아름다운 밤하늘과 나(我)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슬라이딩 돔 형태로 6대의 천체 망원경과 다수의 대형 쌍안경이 비치된다. 천체 투영실은 9m짜리 돔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우주 입체 돔 영상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시교육실은 천문기상과학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드론을 이용한 무인 관측기술과 드론체험, 천체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VR체험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가상프로그램 체험활동 공간이다. 기상이변에 대한 안전불감증 해소와 의식전환의 교육공간이며, 천상홀은 하늘의 모습을 담은 공간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995년 이후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더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국제행사·회의, 박람회, 체육행사 등을 마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관련 연계사업 부진의 결과다. 순천시는 내년 12월 '순천 잡월드' 개관을 목표로 여러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매력적이고 시대정신에 부응한 '순천 잡월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기상과학관 건립'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 503번 박근혜 구치소에 수감되고

세월호의 귀환과 함께 박근혜 시대가 침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된 것이다. 그는 임기 도중 탄핵되어 구속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기록되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구속이다.

모두들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말한다.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는 법원이 그를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그동안 13개 혐의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수집해 놓았다. 법원은 검찰의 뇌물죄 적용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 발부 사유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검의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으로 이르게 한 직접적 이유는 국정 농단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자세가 더 문제다. 503번 박근혜는 이제 구치소에서 처절한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정 농단을 비호·방조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SK·롯데 등의 특혜 수사 등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장으로 지난 50년간 계속돼 온 '박정희 패러다임'도 함께 종언을 고했다. 이제 정치권은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완성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 눈물의 세월호 항구로 들어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세월호 선체가 목포항에 도착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했던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에 목포 신항으로 예인된 것이다. 세월호의 수많은 생명들을 방치한 책임자는 그 순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하는 사건이 한날에 벌어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동거차도 해역에서 침몰한 후 팽목항은 1080일 동안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에겐 눈물과 기다림의 장소였다. 하지만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입항한 이후 이제 추모의 장소는 팽목항에서 목포 신항으로 바뀌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3년 만에 팽목항을 떠나면서 그동안 자신들과 아픔을 함께해 준 진도 군민들과 국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이사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극적으로 생환한 남성이 트럭 운전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추모의 물결은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겨 갔다. 전국의 추모객들이 목포 신항으로 모여들었다. 목포 신항으로 가는 북문 철책에는 노란색 추모 리본이 하나 둘 매달리더니 준비한 리본 수천개가 이틀 만에 동났다.

세월호는 선체 내부의 진흙 제거 작업을 거쳐 6일쯤 철제부두에 거치될 예정이다. 부두에 거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된다. 세월호 인양의 가장 큰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인 만큼 목포 신항에서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한이 풀리길 기원한다. 3년 동안 떠나보내지도 못했던 이들이 목포 신항에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無 等 鼓

## 베트남댁

다문화 가정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2만 가구 이상이 생기고 있다. 이중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다문화 주부)는 베트남과 중국 출신이 가장 많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다문화 주부의 수는 베트남, 중국, 조선족,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전남 지역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조선족 순으로 약간 달랐다. 이중 '베트남댁'은 광주와 전남 지역 양쪽에서 다문화 주부 전체 중 30%를 넘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베트남과의 감정적 친밀감도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관광은 물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교류의 폭과 질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뚜렷이 남아 있다. 베트남 왕족으로서 고려 귀화 이후, 자긍심을 잃지 않고 베트남인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있다. 800~900년의 내력을 가진 화산(花山) 이씨와 정선(旌善) 이씨이다.

화산 이씨의 시조는 '이용상'인데, 그는 베트남(당시 안남국 또는 대월) 교지군왕 이공온의 7세손으로 알려져 있다. 1226년(고려 고종 13년) 자국의 변란으로 왕족들이 살해당하자 측근들을 데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다 황해도 옹진군 화산면에 정착했다. 당시 고려 고종은 그를 측은히 여겨, 그 지역의 땅을 주고 그를 화산군으로 봉해 정착을 도왔다.

그는 몽골 침입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5개월 동안 지구전을 펼치며 큰 전과를 올렸다. 그의 치적은 이민족이라는 이유로 고려사에는 누락됐고, 옹진군지에만 실려 있다. 화산 이씨는 남한에만 17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정선 이씨 시조 '이양혼'은 베트남 리 왕조 인종 이건덕의 셋째 아들로서 왕위 다툼 끝에 북송으로 망명했다가 1127년에 고려로 들어와 경주에 정착했다. 그 후 이양혼의 9세손 이우원이 국자생원(國子生員)으로 상서 좌복야에 추봉돼 강원도 정선으로 옮겨 왔으며, 이후 후손들이 정선을 본관으로 삼았다. 남한에만 3600여 명이 살고 있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